

전체 ☀️☀️ 신선 ☁️ 가공 ☀️ 수산 ☀️☀️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6호

I 국산 김밥 '탐나는봉' 사용료 받고 미국 진출



II 21년산 미국 수출 배·사과 국외생산지검역종료 영상회의 개최



III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품목 및 국가별 검역요건 브로슈어」 제작

수출 성과
요약

CONTENTS

- 미국 3
- 캐나다 11
- 유럽 18
- 호주 25
- 멕시코 32
- 태국 39
- 베트남 46
- 인도네시아 53
- 일본 60
- 중국 67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6호 2022. 3. 31(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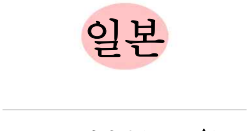
‘22.3.31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30.2억\$

부 류 별

신선	가공	수산
  1.2% 374.8백만불	  14.1% 1,850.8백만불	  39.1% 789.4백만불
+ 닭고기, 유자, 배 - 김치, 인삼, 딸기, 파프리카	+ 면류, 과자류, 음료, 커피조제품 - 인스턴트면, 리큐르, 초코렛	+ 김, 명태, 연어, 고등어, 대구 - 참치, 어묵, 오징어, 전갱이

국 가 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466.7백만불(14.5%↑)	물류난 지속에도 불구하고, K-Food 인지도 및 프리미엄 이미지로 수출 증가세 지속	 인삼(10.1%), 배(98.9%) 쌀가공식품(42.7%), 주류(72.1%)  김치(△3.4%), 버섯(△21.8%) 전복(△2.1%),
  중국 511.3백만불(28.5%↑)	인삼, 유자를 중심으로 신선 회복세이나, 혼합조제식료품을 필두로 전체 감소세	 연어(88,572.3%), 라면(16.4%), 유자(16.7%)  인삼(△19.6%), 소스류(△28.5%)
  신남방 (ASEAN + 인도) 649.4백만불(13.5%↑)	캄보디아 음료 시장 회복과 닭고기, 과실류 등 신선식품 호조로 전체 증가세	 연어(1,495.3%), 음료(23.6%) 닭고기(106.5%), 유자(190.7%),  참치(△25.9%), 주류(△10.8%)
  일본 483.0백만불(8.2%↑)	신선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연초류, 식초, 반려동물 사료 등 수출 증가 견인	 인삼류(28.0%), 연초류(11.6%) 식초(112.4%), 사료(76.0%),  파프리카(△10.8%), 김치(△31.1%) 참치(△9.2%),
  EU + 영국 226.6백만불(50.4%↑)	봉쇄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음료, 김치, 장류 중심 고른 증가세	 김치(22.1%), 음료(26.9%) 참치(68.5%)  라면(△7.5%), 명태(△87.5%)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96호 2022. 3. 31(목)

품목별 이슈

* 실적 : '22.1.1 ~ 3.31

□ 인삼

- (중국 16.9, △19.6) 해외생산기업 등록 지연 해소 및 3·8부녀절 등 이벤트 특수 대비 재고량 비축을 위한 바이어 발주 증가
- (베트남 9.4, 39.4↑) 인삼차, 홍삼가공품 인기로 회복세
- (일본 7.0, 28.0↑) 엑기스 위주로 수출되었으나 먹기 편한 스틱제품 등 제품이 다양화되면서 판매 확대

55.9백만불(△3.1%)

주요 수출국 : 중국(16.9백만불, △19.6%), 베트남(9.4, 39.4%), 미국(8.1, 10.1%), 일본(7.0, 28.0%), 대만(5.4, △7.3%), 홍콩(4.1, △15.5%)

□ 배

- (미국 80.1, 12.7↑) 미주노선 전용선복 확보 및 21년 출하 지연 물량이 수출되기 시작하며 수출 증가세
- (대만 28.3, 22.5↑) 수출검역요령 개정안 고시(21.5)로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되어 수출 증가 추세

10.5백만불(65.1%↑)

주요 수출국 : 미국(4.6, 98.9%), 대만(3.0, 19.0%), 베트남(1.8, 177.3%), 홍콩(0.5, 37.2%), 인니(0.2, 144.1%), 태국(0.2, △3.1%)

□ 음료

- (중국 21.5, 3.8↑) 차음료 등 기능성 원료나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품목 인기
- (캄보디아 23.8, 19.6↑) 건기시즌과 4월 캄보디아 명절을 앞두고 음료 품목 판매증가로 인한 바이어 수입증가
- (러시아 21.5, 3.8↑) 전쟁 발발 후 환율 악화로 인해 부피 크고 수출단가 낮아 물류 부담이 큰 음료 수출감소

130.4백만불(16.0%↑)

주요 수출국 : 미국(26.7, 34.9%), 캄보디아(23.8, 19.6%), 중국(21.5, 3.8%), 베트남(10.5, 30.3%), 인니(5.0, 21.7%), 일본(4.7, 47.2%)

□ 김

- (미국 47.2, 56.6↑)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저지방 고단백 건강 간식으로 인기, 소비 증가추세
- (중국 36.3, △10.0) 애국 소비를 의미하는 '귀차오(國潮)' 열풍이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며 글로벌 브랜드 불매 운동 강화, 미국 월마트 계열의 회원제 마트인 '샘스클럽'으로 납품하는 조미김 제품 발주 감소 등 영향으로 수출 감소
- (일본 25.7, 20.0↑)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김 수입 쿼터제도 운영중으로 업무용 건조김 수요 증가하며 수출 증가

183.8백만불(20.6%↑)

주요 수출국 : 미국(47.2, 56.6%), 중국(36.3, △10.0%), 일본(25.7, 20.0%), 태국(12.2, 15.8%), 러시아(8.4, △4.0%), 대만(7.2, △0.3%)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7,8)

농진청 이슈



국산 감귤 ‘탐나는봉’ 사용료 받고 미국 진출

- 2035년까지 23만 6000 주 계약... 국내 감귤 첫 사례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010년 개발한 ‘탐나는봉’을 미국 현지 감귤 재배 유통 업체(M. Park INC.)에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미국 실증재배를 진행해 온 결과, 미국에서 재배되던 기존 일본 품종(부지화(상품명: 한라봉))보다 ‘탐나는봉’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품종보호가 만료되는 2035년까지 14년간이다. 계약 물량은 총 23만 6000주(그루)로, 올해 1만 주를 시작으로 점차 재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1주당 1.25 달러씩 총 29만 5000달러(3억 6,500만원) 규모이다. 이번 계약은 국내 생산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내 생산 판매만을 허용하며, 현지에서 생산한 묘목과 과실의 국내 반입은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탐나는봉’은 ‘부지화’(한라봉)의 주심배* 돌연변이 품종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품종보호 등록을, 미국에서는 2019년 식물특허 등록을 마쳤다. 겉모양이 ‘부지화’와 비슷하며 무게는 280g 내외로 큰 편이며 당도는 15브릭스(°Bx) 내외로 ‘부지화’보다 1브릭스(°Bx) 높고 식감이 우수하다. 2018년부터 국내에 본격 보급되고 있는 ‘탐나는봉’은 현재(2021년) 9.2헥타르(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점차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계약은 국내 육성 감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한 해외적응성시험의 첫 결실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미국에서의 ‘탐나는봉’을 시작으로 2019년 호주에서 ‘미니향’, ‘탐빛1호’의 해외적응성을 시험 중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열매 평가를 통해 호주시장 진출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이번에 계약한 유통업체(M. Park INC.) 김병학(재미교포) 대표이사는 “기존 품종보다 생육과 맛 면에서 뛰어난 ‘탐나는봉’이 미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계 한라봉 품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품질 개선과 현지 판매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탐나는봉’의 미국 진출은 많은 감귤 육종 강국의 도전지인 미국에서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인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 갖춘 품종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모본에서 무수정으로 발생하는 배를 말하며, 감귤에서는 이 배에서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하여 품종을 개발



<‘탐나는봉’>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식물검역 이슈



21년산 미국 수출 배·사과 국외생산지검역 종료 영상회의 개최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1년산 국산 배·사과의 미국 수출을 위한 미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종료하고, '21년 국외생산지검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와 영상회의를 실시하였다. APHIS는 21년 국외생산지검역을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검역본부와 농업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시즌 미국 수출을 위한 배 검역량이 '20년 시즌보다 약 2,000톤 정도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양국은 대미 배·사과 국외생산지검역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순조로운 대미 배·사과 수출을 위해 협조하기로 하였다.

수출 생과일 검역요건

CONTENTS

• 미국	3
• 캐나다	11
• 중국	19
• 호주	25
• 브라질	33
• 멕시코	39
• 칠레	43
• 아르헨티나	49
• 인도	55
• 대만	59

수출 생과일 검역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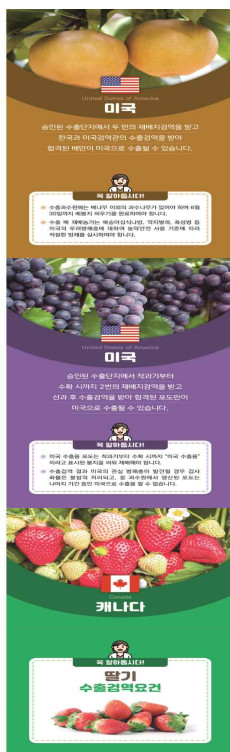
CONTENTS

• 미국	3
• 캐나다	9
• 뉴질랜드	15
• 중국	21
• 호주	27
• 대만	35

수출 생과일 검역요건

CONTENTS

• 딸기	3
• 사과	7
• 배	11
• 사과	17
• 사과	21
• 사과	25
• 사과	29
• 사과	33
• 사과	37
• 사과	41
• 사과	45
• 사과	49
• 사과	53
• 사과	57
• 사과	61
• 사과	65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품목 및 국가별 검역요건 브로슈어」 제작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2년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농산물의 품목 및 국가별 검역요건을 수록한 브로슈어를 제작하였다. 검역본부는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인 배, 사과, 포도, 딸기, 파프리카 등 5종에 대해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요건을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가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검역본부는 브로슈어를 활용해 상대국 검역요건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수출 농산물의 검역 안전성을 확보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